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19, 제43권 제2호 1~11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19, Vol.43, No.2, pp. 1~11
http://dx.doi.org/10.26446/kjlrp.2019.6.43.2.1

노인의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스포츠참여 및 스포츠관람 선호도 차이 분석

김승화[1] · 오기성[2]
[1]서울대학교 · [2]화교대학교

Preference differences analysis between sports participating and sports watching by the type of sports activity of the elderly

Jin, Chenghua[1] · Wu, Jixing[2]
[1]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2]Huaqiao University, Chi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ustomized plan for the elderly sport activities in the future through analyzing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by the types of sports activities. This study use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6 and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fter separating groups into sports watching and sports participating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The analysis shows that 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degree of leisure cost sufficiency, and leisure ti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in selection of leisure sports activities. To be specific, women elderly preferred sports participation more than men, and the olders show higher probability of watching sports. Then the higher the level of income, education level and leisure cost, and the more leisure time are higher probability of sports participation, respectively.

Key words : elderly, leisure sports activity, preference, logistic regression

주요어 : 노인, 스포츠활동, 선호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in, Chenghua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Tel: +※ 개인정보 표시제한, E-mail: kimtmdghk@snu.ac.kr
Received: April, 10, 2019 Revised: June, 19, 2019 Accepted: June, 24, 2019

Ⅰ. 서론

‘100세 시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강한 노년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 또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종형(bell-shape)구조로 바뀌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이봉진, 홍상욱, 2012).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0%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 각 기관의 기능 저하와 정신적 제반 능력이 감퇴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이 증가 및 경제 능력 상실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수립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안건으로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최희주, 2012),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노인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양례 외, 2012). 스포츠활동은 노인의 건강증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은 비참가 노인에 비해 정신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나며(이경선, 2005),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강한 사회적 연결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공감 등에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오은혜, 2018).

스포츠활동은 여가활동 유형의 하나로서 관람형과 참여형으로 구분된다(Iso-Ahola, 1980). 관람형 스포츠는 주로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를 관람하는 활동을 말하며, 참여형 스포츠는 심신의 단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적극적인 스포츠활동은 노인들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한편 스트레스 우울감을 감소시켜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경식, 박보현, 2013; 김예성, 하응용, 2015).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제약 하에 개인의 취향 및 선호도에 따라 행해지는 선택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허지정, 최막중, 2017). 이 중에서 노년기 남성의 경우는 독립적 여가활동을 즐기고 여성은 사회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석, 임근욱, 2017). 그리고 노년기의 여가활동에서 소득수준은 여가활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 유형에 있어서 자기계발이나 오락, 신체적 활동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조광익, 2006). 교육수준도 여가활동 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김영길, 2008), 그 중에서 고학력 노인은 스포츠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생산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저학력 노인은 TV 시청이나 라디오 듣기, 공원,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서 소일 활동 등의 참여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신상식, 2011).

노년기에는 시간적·정서적인 여유로 인해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재욱, 2011), TV 시청, 라디오 청취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Iso-Ahola et al., 1994).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중 7시간

16분을 사용하여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여가시간으로서 보내는 활동은 TV시청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에 4시간 4분, 교제활동으로 51분, 스포츠 및 레포츠는 49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운동 종류는 주로 걷거나 산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소극적인 활동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현정, 김현경, 2017).

이현정과 김현정(2017)은 서울시 소재 25개의 자치구에 위치한 31개의 노인종합복지의 스포츠시설과 체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복지관들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실내에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이다. 결국 노인들의 시설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되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복지관의 이동 혹은 운동 비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노인들의 선호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여야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노인은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스포츠활동유형 선택에 있어서도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체육학 분야에서 최근 들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노인의 스포츠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참여를 통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최영옥, 구봉진, 임나리, 2000; 한이석, 2000; 김남진, 2001; 이혁, 위성식, 2008; 김경식, 박보현, 2013; 김예성, 하웅용, 2015),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삶의 질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허종순, 2002; 이상덕, 2004; 한혜원, 2005; 임경희, 2005; 윤주미, 최영래, 2011; 김정현, 김헌일, 2013; 신수미, 2016), 노인 체육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영린, 박진경, 김원경, 박종훈, 2006; 이은석, 2009; 박용범, 2010; 김예성, 박재희, 2012; 손석정, 2015), 노인 여가 및 스포츠 시설에 관한 연구(구영미, 강진홍, 2015; 이현정, 김현경, 2017) 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참여 분석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여가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노인의 맞춤형 스포츠시설 제공을 통한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노인이 스포츠활동을 함에 있어 선호도가 다양하다. 즉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 간에 분명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선호도 차이는 개인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스포츠참여와 스포츠관람 간의 선호도 차이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스포츠활동 추진 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집단을 각각 구분하였다. 실증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은 정성적 반응 회귀모형의 하나인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한다.

1.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조사 및 공표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6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만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실태, 여가만족도 분석을 통한 국민여가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활동 유형은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총 8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스포츠관람활동과 스포츠참여활동을 중심으로(Table 1. 참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남녀 노인 총 1861명 중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집단과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집단을 각각 분류하여 최종 717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Table 1. Types of sports activities

구분	내용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경기장 방문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TV, DMB를 통한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격투기 경기관람
스포츠 참여활동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테니스, 스쿼시 당구, 포켓볼, 볼링, 탁구 골프 수영 원드서핑, 수상스키, 다이빙 등 스노보드, 스키 등 아이스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요가/필라테스/태보 배드민턴/줄넘기/맨손 등 육상/조깅/속보 격투기운동(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댄스스포츠(탱고, 왈츠, 자이브 등)

본 연구에서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집단은 각각 416명, 301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단별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활동은 〈Table 2〉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관람 빈도가 2배 남짓 높은 반면, 스포츠참여 빈도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sports activities frequency	
		watching	participating
gender	male	291(69.9%)	111(36.8%)
	female	125(30.1%)	190(63.2%)
	total	416	301
age	65-69	125(30.0%)	109(36.2%)
	70-74	158(40.0%)	131(43.5%)
	75-79	86(20.7%)	45(15.0%)
	over 80	47(11.3%)	16(5.3%)
	total	416	301
household income (million (M) won/ month)	less than 1 Mwon	134(32.2%)	85(28.2%)
	1-2 Mwon	161(38.7%)	97(32.2%)
	2-3 Mwon	61(14.7%)	57(18.9%)
	3-4 Mwon	37(8.9%)	26(8.7%)
	4-5 Mwon	15(3.6%)	13(4.3%)
	more than 5 Mwon	8(1.9%)	23(7.7%)
	total	416	301
education	high school below	298(71.6%)	202(67.1%)
	high school	98(23.6%)	82(27.2%)
	college and above	20(4.8%)	17(5.7%)
	total	416	301

게 나타났다. 연령은 65세부터 74세까지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 빈도는 증가하다가 75세 이상부터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 빈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소득을 보면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에서 스포츠관람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0만원 이상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 스포츠참여는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가 동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고졸 이하 집단이 스포츠관람 72%, 스포츠참여 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충분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응답자가 2016년 8월 1을 기준으로 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사이 최근 1년 동안 경험을 기반으로 평일과 휴일 각각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119-124).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1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평일과 휴일의 총 여가시간을 합친 후 다시 평균 여가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5년 8월 1일에서 2016년 7월 31일 사이 평일과 휴일을 따로 분류하면 평일은 248일, 휴일은 117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휴일은 주말 외 공휴일도 포함되며, 그중 주말은 총 104일(=52주*2일)로, 공휴일은 총 13일로 집계되었으며, 집계과정에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짜는 주말로 간주하였다. 다음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총 평일 수를 곱한 값과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총 휴일을 곱한 값의 합계를 다시 365일로 나눈 값을 하루 평균 여가시간으로 산출하여 최종 지표로 분석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2시간, 휴일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노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2시간*248일+4시간*117일)/365일=2.6시간'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여가비용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비용 지출은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활동 중 스포츠참여는 스포츠관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골프처럼 부유한 계층만 즐길 수 있다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소득수준과 여가비용 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비용과 소득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족도와 유사한 척도인 여가비용충분도를 여가비용의 대체지표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여가비용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 여가생활(스포츠활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여가비용에 대한 충분도로서,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122).

3. 분석모형 및 변수

본 연구에서 노인의 선호하는 스포츠활동 유형이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는 이산형 명목척도이므로 확률선택모형인 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로지스틱모형은 대안의 수에 따라 2개의 대안 간 선택에 대한 이항(binary) 모형과 3개 이상의 대안 간 선택에 대한 다항(multinomial) 모형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 2개의 선택 대안을 고려하므로 이항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 로짓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STATA 14.2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 및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비용충분도 및 여가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은 명목척도로 분류하였다. 특기할 사항으로 스포츠활동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적 효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여가시간에 제곱항을 추가하여 이차함수를 구성함으로써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활동 유형의 선택확률이 비선형의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포착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나열하면 〈Table 3〉과 같다.

Ⅲ. 실증분석 결과 및 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생길 수 있는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분산팽창인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모두 5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은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활동 유형에 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의 접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LR(Likelihood Ratio)검정과 H-L(Hosmer and 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LR 검정 결과 156.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H-L 통계량에 대한 검정

Table 3. Variables put into sports activity selection probability model

type	variable name	metric(dummy code)
dependent variable	sports activity preference	watching(0), participating(1)
independent variable	gender	female(0), male(1)
	age	65-69(1), 70-74(2), 75-79(3), over 80(4)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1), 1-2 million won(2), 2-3 million won(3), 3-4 million won(4), 4-5 million won(5), more than 5 million won((6)
	education	high school below(1), high school(2), college and above(3)
	leisure cost sufficiency degree	7-point likert scale, one point is very lake and seven point is very enough
	leisure time	average leisure time per day
	leisure time^2	average leisure time square per day

Table 4. Multicollinearity test

variables	VIF
gender	1.04
age	1.15
household income	1.18
education	1.13
leisure cost sufficiency degree	1.00
leisure time	1.41
leisure time^2	1.32

Note: The leisure time variable is converted to mean centering

결과 p=0.14(0.05이상이어야 적합한 것으로 해석)로 여가 스포츠활동유형 선호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또한, 모형분류 설명력은 71.69%(통상 65%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음)로 모형이 잘 예측된 것으로 보며, ROC 곡선 아래 면적이 0.758로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를 정확히 분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정계수 값에 따른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16.1% 수준에 이른다.

분석결과 스포츠활동 유형의 선택에 있어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여가비용충분도,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제곱항 등 변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효과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스포츠관람보다 스포

Table 5. Estimation result of logic model

classification	Coef.	Std. Err.	Exp(B)
male(female=0)	-1.676***	0.181	0.187
age	-0.234**	0.099	0.791
household income	0.122*	0.069	1.129
education	0.281*	0.157	1.324
leisure cost sufficiency degree	0.473***	0.718	1.605
leisure time	-0.081*	0.047	0.922
leisure time^2	0.025*	0.013	1.025
(constant)	-1.764***	0.466	0.171
log likelihood / LR Chi^2	-409.328 / 156.79***		
Hosmer and Lemeshow (H-L)	0.14		
correctly classified(%)	71.69		
ROC(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0.758		
Pseudo R^2	0.161		
N	717		

***p<0.01 **p<0.05 *p<0.1

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희와 한수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자기개발 및 건강관련 여가를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의 연령별에 의한 스포츠활동 유형의 선호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임창희와 한수진(2008)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은 더 많아지지만, 고령이 됨에 따라 기력의 약화로 인하여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74세 노인이 65세~69세 노인에 비해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20.9%(Exp(B)=0.791) 만큼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에 이어 소득과 교육수준에서도 선호도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즉, 소득수준이 한 단계 증가하면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스포츠관람을 선택할 확률에 비해 1.129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을 지향한다는 조광익(2006)의 연구와 일치하다. 결과적으로 스포츠참여는 스포츠관람보다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가 하면 스포츠 장비, 의류 등 파생적 소비도 증가하기에 소득수준이 스포츠활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한 단계 증가하면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은 스포츠관람을 선택할 확률에 비해 1.324배 높다고 볼 수 있다. 박경란과 이영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학력을 무학, 초졸, 중·고졸, 초대졸이상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무학집단의 경우 여가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보내지만 초대졸 이상 집단은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식(2011)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고학력 노인은 건강·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저학력 노인은 TV 시청, 공원, 노인회관 등에서 소일 활동 등의 참여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충분도에서도 스포츠활동 선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가시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포츠활동 유형의 선택확률이 비선형의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여가시간 내 초반에는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가시간을 늘릴수록 점차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정확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극점을 추정하면 1.6시간(=-여가시간 계수/2*여가시간 제곱항 계수)이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 여가시간이 대략 1.6시간 내에서는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1.6시간을 초과하면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대부분 집 근처의 공원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독함을 해소하거나 집 또는 노인복지관 등 실내에서 TV 시청을 통해 스포츠관람 등 소극적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화 되어왔다. 한편 허종순(2002)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관람보다 스포츠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을 시사한 바 있으며, 김용국과 이경수(2011)는 스포츠참여 기간이 길수록 정서적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참여는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행복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역할과 커다란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어진 여가시간 내 먼저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이유는 역으로 노인의 특성과 거주지역의 맞춤형 스포츠참여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

한 여가수요 측면 외에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과 시설의 공급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급 효과는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허지정과 최막중(2009)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취미와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작정 노인들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종목을 조사하고 노인의 체육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유호, 권천달, 2017).

마지막으로 여가비용 충분도가 높을수록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비용 충분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은 스포츠관람을 선택할 확률에 비해 1.605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여가비용 충분도는 여가비용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여가 스포츠에 대한 참여욕구와 수요가 많을수록 여가비용 지출의 상승과 더불어 여가비용 충분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비용 충분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러한 사실은 스포츠활동유형 선택에도 반영되어 노인의 여가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가구소득에서 여가비용 지출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결국 저비용으로도 가능한 스포츠활동을 선호하게 되므로 스포츠참여에 비해 스포츠관람을 선택하는 노인의 여가비용 충분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사회, 경제, 건강,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인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건강문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인건강 개선에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이 중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질병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이슈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노인의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선호도 차이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스포츠활동 추진 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연령별에 따른 스포츠활동 선호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의 여가 스포츠참여를 제약하는 소득과 교육수준에서 저소득, 저학력 계층의 경우 적극적인 스포츠참여 보다 소극적인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저소득 노년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스포츠관람을 통해 무료한 시간 보내기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제공하여 스포츠참여를 유도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충분도는 스포츠활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주어진 여가시간 내 초반에는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가시간을 늘리수록 점차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를 정확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극점을 추정한 결과 1.6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 여가시간이 대략 1.6시간 내에서는 스포츠관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1.6시간을 초과하면 스포츠참여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외

여가비용충분도는 높을수록 스포츠참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충분도에서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선호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스포츠 분야에서 노인의 맞춤형 스포츠 참여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는데, 특히 노인의 스포츠복지 측면에서 무작정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별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춰 선호하는 종목을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정석적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는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지 또는 공공공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계획이 필요하다. 그밖에 유휴 공간을 스포츠활동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체 공간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식적인 설문 통계자료를 정량적 차원에서 가공하는 과정에 스포츠활동 유형을 스포츠관람과 스포츠참여 두 집단만 단순화시키므로써 스포츠관람 및 참여를 동시에 선호하는 집단은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이외 스포츠활동 유형의 설문 범위는 만 15세 이상으로, 특히 스포츠참여활동 설문 종목은 청년층과 중년층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므로 노인의 스포츠참여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 된 조사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선호도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재욱(2011). 노인여가복지측면에서의 여가스포츠 정책과 법적검토. **스포츠와 법, 14**(2), 67-93.

김용국, 이경숙(2011). 노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정서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7-15.

구영미, 강진홍(2015).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5**(1), 65-78.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김남진(2001). 직장 여성들의 운동 실천이 신체적, 정신적,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0**(4), 125-137.

김양례, 김상훈, 원영신, 이수연, 주성순(2012). **노인시설의 체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김연수(200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건강과 스포츠활동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영길(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서산호학연구지, 14**(1), 44-55.

김영미(2003). 주부들의 댄스스포츠 참가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3), 123-133.

김경식, 박보현(2013). 한국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과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4**(3), 520-530.

김예성, 박채희(2012). 체육복지활성화 방안 연구: 노인체육복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2), 167-181.

김예성, 하웅용(2015).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5**(4), 344-374.

김정현, 김헌일(2013). 프로그램 선호도를 기준으로 한 노인복지관 이용자 세분화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51), 451-464.

박경란, 이영숙(2007).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65-477.

박용범(2010).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453-463.

신상식(2011).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수미(2016). **노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서비스 기대와 품질에 따른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손석정(2015).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3), 167-180

안주석,임근욱(2017).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1**(2), 113-125.

이경선(2005).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사회적 지지, 고독감 및 사회관계망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이봉진, 홍상욱(2012). 노인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학회, 8**(2), 139-156.

이상덕(2004). 노인의 여가스포츠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6**, 161-174.

이혁, 위성식(2008).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1), 625-635.

이은석(2009).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실버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성화 방안: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1), 131-148.

이현정, 김현경(2017).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스포츠시설 및 체육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6**(1), 473-488.

임경희(200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가스포츠 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6**, 65-76.

임창희, 한수진(2008).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23-43.

오은혜(2018). **여가유형과 여가스포츠 참여에 따른 사회적 연결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윤주미, 최영래(2011). 노인종합복지관 남성 노인의 운동프로그램 참여제약. **한국체육과학회지, 20**(6), 69-79.

정영린, 박진경, 김원경, 박종훈(2006). 클럽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델파이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393-412.

조광익(2006). 여가 소비 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379-401.

최영옥, 구봉진, 임나리(2000). 도시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참여와 사회심리적 건강과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19**(1), 125-139.

최유호, 권천달(2017).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생활 및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한국노인체육학회지, 4**(1), 13-21.

최희주(2012). 고령화 대비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감사원가을특집**, 26-33.

통계청 2017. http://kostat.go.kr.

한이석(2000).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목표지향과 사회적지지 및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175-190.

한혜원(2005). 노인의 여가 스포츠 참여유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5), 713-725.

허종순(2002).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1**(1), 23-32.

허지정, 최막중(2009).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계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6), 161-169.

허지정, 최막중(2017).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 및 여가장소 선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2**(6), 57-72.

Iso-Ahola, S.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Dubuque: William C Brown Pub.

Iso-Ahola, S. E., Jackson, E., & Dunn, E., (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27-249.